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성 복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거울에 비치는 공간 속 시간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2015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노 승 옥

거울에 비치는 공간 속 시간에 관한
표현 연구

- 본인 작품을 중심으로 -

김 성 복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조소과

노 승 옥

인 준 서

노승옥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장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심사위원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본 논문은 2014년 석사학위 청구전에서 발표된 작품을 중심으로 작품 형성 배경과 표현 방법을 연구, 분석한 것으로 거울 속 공간과 시간의 관계 그리고 오브제 표현에 중점을 두었다.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 거울의 앞에 위치한 사람이나 공간을 보는 물건을 말한다. 본인은 거울의 뒷면을 제거함으로써 거울에 보이는 공간과 거울 뒤 공간을 동시에 보이게 하였다. 그리고 거울 표면에 돌을 설치함으로써 이 돌에 의해 거울이 제거되고 뒷면이 보이는 것처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작품이 설치된 공간과 거울이 제거된 부분을 통해 보이는 거울 뒤의 공간을 연결해 관람자에게 다양한 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이와 같이 본인 작품 속의 거울은 공간의 새로운 경험과 흔적으로써의 시간의 흐름을 담고 있다. 이때 작품에서 사용된 돌은 물이나 바람에 따라 흘러가고 변화하는 오브제로 본인의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을 압축한 세월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제 I 장 서론에서는 논문을 작성한 목적과 본인이 생각하는 거울을 통한 시간 흐름에 대해 객관적으로 설명하였다.

제 II 장 본론에서는 작품 형성 배경으로 작품 제작 동기에 관한 서술을 통해 작품 속 공간에 대한 의미와 시간이 공간에 주는 의미를 연구하고 본인 작품 연구에서는 조형적 특성을 거울의 상징과 오브제 사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다.

그리고 작품 분석을 통하여 제작된 작품들의 제작 방법과 작품 설명을 함으로 본인의 작품세계를 돌이켜보았다.

제 Ⅲ장 결론에서는 본 논문을 정리하고 본 연구를 토대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앞으로 작품이 나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 론	1
II. 본 론	3
1. 작품형성배경	3
2) 공간	4
3) 시간	5
2. 작품의 표현방법	7
1) 거울의 상징	7
2) 오브제 사용	8
3. 작품 분석	10
III. 결 론	26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작품 1】 북촌, 60x88, 거울, 세라믹 2014	10
【작품 2】 꿈을 날다, 38x42, 거울, 대리석, 사암, 현무암 2014	12
【작품 3】 꽃병 룡, 60x40, 거울, 세라믹, 아크릴 물감, 사진 프린트 2014	14
【작품 4】 꽃병 죽, 50x42 거울, 아크릴 물감, 사진 프린트 2014	16
【작품 5】 시간 흔적 , 50x30.5, 거울, 자연석 2014	18
【작품 6】 회오리 흐름, 60x60, 거울, 자연석 2014	20
【작품 7】 영역확장, 100x30, 거울, 자연석 2014	22
【작품 8】 흐름의 흔적, 60x60, 거울, 자연석 2014	24

I. 서론

본인의 주재료인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 물체를 비춰주는 물건을 말한다. 거울은 유리 표면에 은, 알루미늄을 진공증착 시킴으로써 거울의 앞에 있는 사람 또는 공간을 반사시켜 보여준다. 작품에서 거울 뒷면의 증착된 은, 알루미늄을 부분적으로 제거하였다. 이렇게 제거된 거울의 표면을 통해 작품이 설치된 곳 뒷면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거울 앞면에는 관람자의 모습이 비치지만, 진공증착이 제거된 부분을 통해, 작품이 설치된 거울의 뒷면 공간이 보인다.

이를 통해 본인 작품 속의 거울은 두 공간을 서로 연결시킨다. 이때, 두 공간이란, 첫 번째로는 거울을 통해 보이는, 전시장을 오고 가는 관람자의 모습과 전시공간이다. 관람자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거울에 비치는 전시장을 통해 시간 흐름의 변화를 경험한다. 거울이 전시장 밖을 향하고 있다면 좀 더 넓은 공간을 담아낸다. 예를 들면 전시장 밖의 계절의 변화와, 거리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 또한 작품의 일부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품 속 거울뒷면의 제거된 부분을 통해 보여지는 작품 뒤 공간이다. 이와 같이 제거된 부분을 통해 보이는 작품이 설치된 공간과, 작품 속 거울을 통해 비춰지는 공간을 동시에 보여주어 관람자에게 공간과 흔적으로써의 시간의 흐름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고자 한다.

작품에서 사용된 돌은 물이나 바람에 따라 흘러 이동하는 오브제로 본인의 작품에서 시간을 거쳐 이동하고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압축된 세월의 흐름으로 보여준다. 돌은 정확한 세월과 장소를 알 수 없을 만큼 세월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돌의 시간의 흔적들을 거울 속에 설치함으로써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였다. 작품에 설치된 돌에 의해 거울이 제거되고 뒷면이 보이는 것처럼 설치하였다. 이를 통해 거울에 반사되어 보이는 작품이 설치된 공간과 거울이 제거된 부분을 통해 보이는 거울 뒤의 공간을 연결해 관람자에게 다양한 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시간이란 공간에서 존속하는 흔적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시간 모든 공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II. 본 론

1. 작품형성배경

본인의 작품은 본인의 일상 속 공간의 경험에서 출발했다. 예를 들면 버스 여행은 본인에게 단순히 이동 수단이 아닌 이동하는 공간으로서의 즐거움을 준다. 처음 이러한 경험을 하였을 때, 캄캄한 어둠 속에서 간간히 있는 가로등에 비치는 버스 내부와 밖이 변화하는 것에 정신을 못 차리고 종점까지 가버렸다. 버스가 이동하면서 오버랩 되는 장면은 낯선 공간을 연출하여 나에게 즐거움을 준다. 반복되는 일상에서의 새로움이란, 이전에는 느낄 수 없던 감정들을 갖게 하고, 다양한 상상을 하게 한다. 예를 들어 미래를 상상하거나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는 비현실적인 상상을 하게 된다. 나는 그것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나만의 ‘버스여행’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이러한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소 이상해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어디까지 가느냐는 질문에 버스여행 중이라는 답을 하였는데 웃음거리가 된 다음부터는 그러한 질문에 거짓을 답하곤 했다. 누구나 스트레스가 받는 날에 혼자만의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누군가는 음식으로 누군가는 수다로 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나만의 방법인 버스여행을 즐긴다.

북적거리는 장소에서 고정된 버스 안 작은 의자에 앉아 새로운 곳을 알아가는 것 또한 반복되는 공간에서의 지루함을 벗어나게 해준다. 이러한 버스 여행은 본인에게 시선, 공간, 시간의 관계를 만드는 장소가 된다.

버스여행에서 버스 창밖으로 비치는 형상은 안과 밖을 연결해 주며 관계를

만든다. 밤이 되면 어둠 속의 가로등 불빛이나, 비가 오면 흐릿해지는 밖의 색 때문에 창문에는 버스 내부의 형상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낮이 되면 버스라는 공간(장소) 속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 또한 시간과 관계되어 있다. 버스가 이동하며 생기는 창밖의 다양한 풍경은 버스 안 고정되어 있는 물체들과 움직이는 승객들로 오버랩 되어 낯설고 새로운 시, 공간을 연출한다.

1) 공간

공간(空間)이란 사전적 의미로 입체적 범위를, 철학적 사전 의미로는 시간과 함께 세계를 성립시키는 기본 형식을 말한다.

작품이 설치된 공간과 거울 속 비친 공간이 서로 만남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제시한다. 여기서 거울은 두 공간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거울은 좀 더 개방적인 배치를 통해 주변 공간과도 관계를 맺는다. 조각은 장소적이며 연관적인 대상이다. 아무리 독립적인 물체라 하더라도 주위 공간 없이 자립하기는 불가능하다. 모름지기 조각의 본질적인 3차 원성 자체가 상호 매개적이며 타력본원적¹⁾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거기에서 안도 바깥도 없이 열린 공간을 볼 수는 있어도 결코 조각의 대상 그 자체를 볼 수는 없다.²⁾

작품은 모두가 장소에 귀속되기 때문에 대상성이 애매해지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회화와 달리 조각은 그것이 존재해가는 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가변적으로 살아간다. 작품이 시간과 공간에 의해 침식된다고 하기 보다는 서로 관계하면서 하나의 세계를 이룩한다. 조각에서는 주위의 공간, 장

1) 타력본원적 <불교>아미타불의 본원, 곧 아미타불이 중생을 구하려고 세운 발원에 기대어 성불하는 일.

비유적으로 다른 이에 기대어 일을 성취함을 이르기도한다.

2) 김준미 <여백의 예술>2002 회화와 조각의 처소 p169

소가 만들어진다. 공간은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는 범위를 나타내며 거울이 나타낼 수 있는 공간은 거울이 설치되고 비치는 장소들이다.

장소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거나 일어난 곳을 말한다. 거울을 작품으로 만들어도 거울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관람자들의 행동에 의해 흔적이 만들어진다. 거울이 비치는 공간들은 무한하다. 작품이 설치된 공간과 비치는 공간으로 관람자는 흐르는 시간과 계절을 느낄 수 있고 그 공간으로 인한 시간의 흔적과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인은 우리의 삼차원 세계에는 또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믿는다. 지금 내 발밑에도 작은 무언가가 살아가고 있을 것이고 내가 거인들의 장난감 집에 살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한다. 영화 해리 포터에서 마법 세계와 일반 세계는 기차역의 9와 3/4승강장을 통해 연결된다. 이러한 상상을 연결해주는 다리를 작가는 거울을 통해 보여주고 싶다. 예를 들면 꽃병 시리즈는 작품이 설치된 곳에 따라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으며, 주변 공간과 연결되어 다양한 작품으로 보인다. 거울작품의 특징 중 하나는 주변 공간에 흡수된다는 점이다. 작품에 나무를 그린다면 그곳은 숲을 연상시키며, 벽을 비추는 작품에 거울을 구름을 그린다면 그곳은 하늘이 되기도 한다.

2) 시간

공간과 시간의 사이는 매우 근접해있다. 시간이란 공간에서 존속하는 흔적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공간 속에서 살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시간 모든 공간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작품 속 거울은 설치 돼있는 공간 속에 또 다른 공간을 흡수함으로써 그 속에 공간, 상태, 관계, 상황, 시간 등을 비상대적 세계로 표출한다.

고정된 공간은 정해진 흐름에 속해있으나, 설치된 거울은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시간성을 찾는다. 거울을 통해 오고 가는 관람자의 모습은 계속해서 변화하는 공간 속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거울이 설치되는 공간에 따라 계절의 변화와 작품을 보지 않는 미 관람자의 모습 또한 작품의 일부가 된다.

본인의 작품 속 거울에는 흔적이라는 시간이 담겨있다. 흔적은 시간이 지나가버린 것을 말하는데 현재가 아닌 과거를 말한다. 과거의 어떤 장소나 물체의 기억을 현재의 시간으로 가져와 함께 흘러가게 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새로운 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작품을 시작하게 된 시작점인 버스여행은 버스 내부의 고정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간의 변화를 느꼈기 때문이다. 어둠 속의 가로등 불빛이나, 비가 오면 흐릿해져 버스 내부의 형상이 더 뚜렷하게 보인다. 낮이 되면 버스라는 공간(장소) 속에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내리는 것 또한 시간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작품에서 사용된 돌은 물이나 바람에 따라 흘러 이동하는 오브제로 본인의 작품에서 시간을 거쳐 이동하고 변화하는 시간의 흐름을 압축된 세월의 흐름으로 보여준다. 돌은 정확한 세월과 장소를 알 수 없을 만큼 세월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돌의 시간의 흔적들을 거울 속에 설치함으로써 시간의 흔적을 표현하였다.

2. 작품의 표현방법

1) 거울의 상징

거울이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첫 번째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모양을 비추어 보는 물건. 두 번째-어떤 사실을 그대로 드러내거나 보여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정의되어 있다.

본인 작품의 특징은 스치는 움직임을 이미지화 한 것이다. 이것은 거울 속 또는 유리에 비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손을 이용해 닦아 내는 모습을 통한 것이다. 본인의 작품은 거울 뒷면에 은, 알루미늄이 진공증착된 일정 부분 제거하여 앞면에는 관람자의 모습이 비치지만 진공증착이 제거된 부분을 통해, 본인의 작품이 설치된 공간이 보이도록 하여, 두 공간을 서로 연결한다. 작품 속에서 거울은 첫 번째로는 빛을 반사하여 비친 공간을 작품 설치 공간과 하나로 연결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작품이 그려진 공간 속 지나가버린 시간과 현재 공간의 시간이 오버랩 되어 만나는 것이다. 두 모습을 통해 다른 차원의 시, 공간을 만들어냄으로써 관람자에게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고자 한다. 【작품1】 , 【작품2】 에서 거울은 공간을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되는데 작품에 그려진 공간을 통해 관람자가 그 장소에 흡수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자 한다. 【작품3】 , 【작품4】 는 작품이 설치되는 장소에 거울 속 꽃병이 흡수되어 관람자에게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거울은 비치는 것에 따라 주변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이와 같이 거울은 공간을 확장시키고 작품 속 거울은 현재의 시간을 통한 것이 아닌 현재와 과거의 시간과 공간에 따라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2) 오브제의 사용

본인 작품 속 오브제란 자연석을 말한다. 나뉘어 뒹굴고 있는 자연석은 대체로 아주 오래된 것이다. 사람 머리 크기 만 한 것조차도 오만 년에서 십 만년이 지난 것이 흔한 모양이다. 이처럼 자연석은 정신이 아득해질 만큼 긴 시간의 덩어리이면서 동시에 신경질이 날 정도로 규정하기 어려운 공간적인 존재이기도 하다.³⁾ 돌은 각각의 모습과 색이 있고, 이미지 그리고 언어가 있고 역사가 있다. 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물체 중 하나이다.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럽고 공간적 존재로 현재의 위치와 이전의 위치를 생각해보자면 자연적인 힘으로만 움직이던 시간과 공간의 압축된 물체를 인위적으로 가져와 또 다른 공간과 시간으로 가정된 공간에 가둠으로써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연 그대로의 돌을 사용하기로 유명한 이우환은 “따로 사는 것을 불러 인연을 맺어주는 것이고 돌 사이의 대화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표현했다. 재료들의 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이 놓여 있는 공간이라고 할 만큼 공간은 작품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 어떤 공간에 작품을 설치하나에 따라 작품 설명이 달라진다. 이우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놓아두는 것을 통해 사물과 공간, 위치, 상황, 관계 등에 접근하는 예술을 의미하는 ‘모노하’⁴⁾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거울이 설치된 공간과 상황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작품이 어느 공간과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다른 풍경을 연출하기 때문이다. 또 그 관계의 상태를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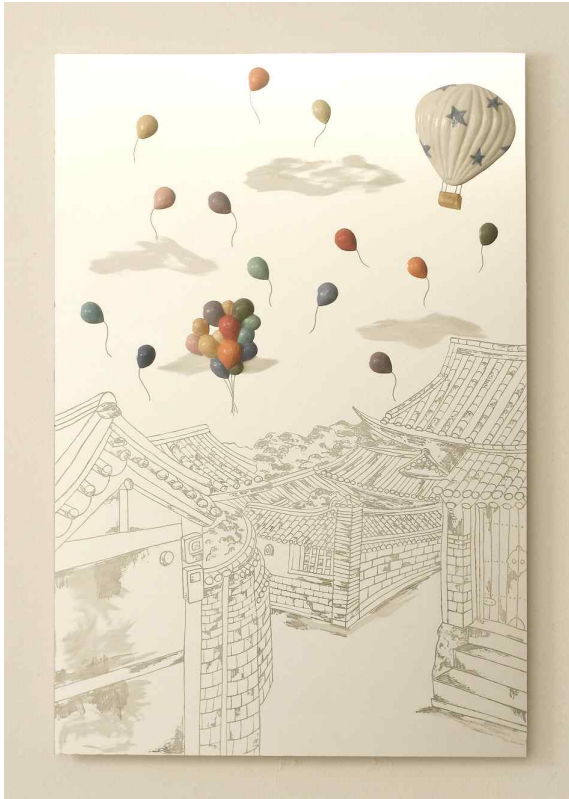
3) 김춘미 <여백의 예술>2002 돌을 찾아서 p41

4) 1967~68년 시작된 미술운동: 돌, 철, 나무 등 재료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며 사물, 공간, 인간의 관계를 재고했다

여주기도 한다. 거울은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돌이나, 나무는 자연에서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자연오브제이다.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가공된 거울에 접목시켜 그 공간을 그대로 가져옴으로써 그 오브제들의 공간을 흡수할 수 있다. 자연 오브제의 특징은 자연에서 그 오브제가 살아온 흔적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의 흔적을 거울에 흡수시켜 거울 속에서 그 흔적들을 현재의 시간과 함께 흐르도록 하며, 지나가버린 시간의 흐름과 흔적을 현재의 시간에 공존시켜 그 흔적들의 시간을 다시 느끼게 한다.

3. 작품분석



【작품1】 북촌, 60x88, 거울, 세라믹 2014

【작품1】 북촌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60x88 cm

작품재료 : 거울, 세라믹

제작방법-

거울 뒷면에 북촌 풍경을 드로잉 한 후 핸드 밀러를 이용하여 거울의 약품 처리가 된 부분을 제거하여 투명하게 만든다. 백자토를 이용하여 열기구와 풍선 모양을 만들어 도자기를 구워 거울 앞부분에 에폭시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작품설명-

작품 북촌의 배경은 우리의 전통한옥마을로 정겹고 따듯한 느낌을 준다. 작품 속에서 한옥은 현대에는 많이 사라져버린 지나간 시간 속에 존재하는 장소이다. 이곳에 어울리지 않는 알록달록한 열기구와 풍선을 설치해 현재의 시간의 움직임과 작가가 느끼는 밝고 즐거운 느낌을 세라믹 풍선을 이용해 결합시켰다. 세라믹 풍선은 가상의 공간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깨져버리기 쉬운 것을 상징한다. 거울에 비친 관람자의 현재는 마치 북촌에 들어와 있는 경험을 하게 하고 지나간 시간 속에 현재의 시간을 결합해 관람자에게 새로운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작품2】 꿈을 날다, 38x42, 거울, 대리석, 사암, 현무암 2014

【작품2】 꿈을 날다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38x42 cm

작품재료 : 거울, 대리석, 사암, 현무암

제작방법-

대리석, 사암, 현무암 등의 돌을 풍선 모양으로 깎고, 사포와 구두약을 이용해 풍선에 광택을 나도록 한다. 몇 몇 개는 겹쳐진 풍선 모양으로 깎은 후 그 조각들은 에폭시를 이용하여 붙인다. 거울 뒷면에 그 풍선 모양의 돌들의 풍선 줄과 구름을 스케치 한 후 핸드 밀러를 이용하여 거울 약품을 제거한 후 앞면에 미리 그려둔 풍선 줄 위로 돌 풍선들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부착한다.

작품설명-

작품 꿈을 날다는 꿈을 상징하는 돌이 하늘 높이 날아가 구름과 만나는 장면을 연출하였다. 우리는 무언가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하늘에 기도를 한다. 높은 하늘에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란 사람들의 믿음이 있다. 꿈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값지고 아름다운 노력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단단하고 알록달록한 돌을 사용하여 관람자들의 꿈이 하늘 높이 날아가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미로 작품을 제작하였다.



【작품3】 꽃병 룡, 60x40, 거울, 세라믹, 아크릴 물감, 사진 프린트 2014

【작품3】 꽃병 룡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60x40 cm

작품재료 : 거울, 세라믹, 아크릴 물감, 사진 프린트

제작방법-

룡 문양의 도자기 사진을 인화하여 거울 뒷면에 그와 같은 모양의 도자기 형태를 스케치 한 후 위에 꽃, 잎들을 같이 스케치하여 그라인더, 핸드 밀러를 이용하여 약품을 제거 후 폼 보드를 이용하여 0.5mm 간격을 두고 사진 프린트를 붙여 공간을 띄어준다. 거울 앞면에는 도자기 위에 꽃과 잎들을 아크릴 물감을 이용해 그림 그려준다. 백자토를 이용하여 꽃잎을 도자기로 구워주고 그림과 같이 에폭시를 이용하여 붙여준다.

작품설명-

반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국화꽃, 튜립 등 많은 명화들을 보면 테이블 위 꽃 화병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정적이 흐르는 방 한가운데 놓인 꽃은 따듯함 준다. 거울에 화려한 꽃 그림을 그려 거울로 비치는 공간이 어디든 꽃병과 어우러져 따듯함을 느낀다. 꽃에는 세라믹 오브제를 통해 입체감을 주고 화사함을 살려 밝은 느낌을 주며, 꽃병에 그려진 룡 무늬는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동양의 미가 돋보이는 도자기이다. 룡은 자연의 생명력을 지닌 신성한 상상의 동물이다. 자연의 생명력을 작품 속 그려진 꽃에 접목시켜 거울로 비친 현재의 시간과 공존하게 하였다.



【작품4】 꽃병 죽, 50x42, 거울, 아크릴 물감, 사진 프린트 2014

【작품4】 꽃병 죽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50x42 cm

작품재료 : 거울, 아크릴 물감, 사진 프린트

제작방법-

매, 죽 문양의 도자기 사진을 인화하여 거울 뒷면에 그와 같은 모양의 도자기 형태를 스케치 한 후 위에 꽃, 잎들을 같이 스케치하여 그라인더, 핸드 밀러를 이용하여 약품을 제거 한 후 폼 보드를 이용하여 0.5mm 간격을 두고 사진 프린트를 붙여 공간을 띄어준다. 거울 면에 화려하게 피어난 꽃잎을 아크릴 물감을 이용하여 그려주었다.

작품설명-

반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국화꽃, 튜립 등 많은 명화들을 보면 테이블 위 꽃 화병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정적이 흐르는 방 한가운데 놓인 꽃은 따듯함 준다. 거울에 화려한 꽃 그림을 그려 거울로 비치는 공간이 어디든 꽃병과 어우러져 따듯함을 느낀다. 하얀 꽃과 노란 꽃은 겨울에서 봄으로 변하는 계절을 상징하게 된다. 도자기에 그려진 매, 죽은 매난국죽의 하나로 춘하추동을 나타낸다. 그중 매와 죽은 각각 봄, 겨울 나타내며 하얀 거울 눈꽃과 봄의 개나리를 상징한다. 거울로 비치는 공간의 계절과 작품 속 계절을 동시에 보여 주어 관람자에게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게 한다.



【작품 5】 시간 흔적, 50x30.5, 거울, 자연석 2014

【작품 5】 시간 흔적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50x30.5 cm

작품재료 : 거울, 자연석

제작방법-

거울의 뒷면에 드로잉을 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드로잉 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제거한다. 제거할 때물을 뿌리면서 하면 물이 없을 때 보다 빠르게 제거되며 냄새와 가루 날림이 없다. 그라인더를 사용 후 스테인리스 클리너를 이용해 그을음과 벗겨지다 만 곳을 닦아준다. (거울을 여러 단계의 약품 처리로 만들어져있다. 그라인더로 밀 때 단계별로 제거 것을 볼 수 있다.) 거울을 앞면으로 돌려 에폭시를 이용하여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부착하여 준다.

작품설명-

작품 시간 흔적은 거울 속에 비친 공간 속 시간의 흔적을 나타내고 있다. 돌은 물이나 바람에 따라 흘러 이동하는 오브제로 시간을 거쳐 이동하고 변화하는 흔적의 압축체이다. 돌을 통해 지나가 버린 시간의 흔적을 거울 속 비치는 현재의 시간과 함께 흘러가게 하여 관람자에게 새로운 시간과 지나가버린 시간을 경험하게 한다.



【작품 6】 회오리 흐름, 60x60, 거울, 자연석 2014

【작품 6】 회오리 흐름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60x60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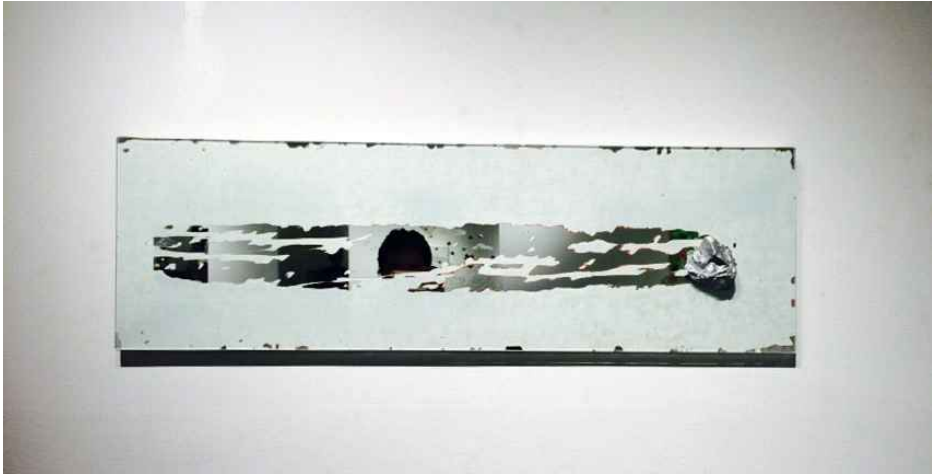
작품재료 : 거울, 자연석

제작방법-

거울의 뒷면에 회오리 모양 드로잉을 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드로잉 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제거한다. 제거할 때물을 뿌리면서 하면 물이 없을 때 보다 빠르게 제거되며 냄새와 가루 날림이 없다. 그라인더를 사용 후 스테인리스 클리너를 이용해 그을음과 벗겨지다 만 곳을 닦아준다. (거울을 여러 단계의 약품 처리로 만들어져있다. 그라인더로 밀 때 단계별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울을 앞면으로 돌려 에폭시를 이용하여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부착하여 준다.

작품설명-

작품 회오리 흐름은 자연적 순환을 보여준다. 오브제로 사용된 돌은 물이나 바람에 따라 흘러 이동하는 것으로 작품에서 많은 시간과 공간을 거쳐 이동하고 변화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을 압축된 의미로 사용된다.



【작품 7】 영역확장, 100x30, 거울, 자연석 2014

【작품 7】 영역확장 100x30 거울, 자연석 2014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100x30 cm

작품재료 : 거울, 자연석

제작방법-

거울의 뒷면에 드로잉을 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드로잉 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제거한다. 제거할 때물을 뿌리면서 하면 물이 없을 때보다 빠르게 제거되며 냄새와 가루 날림이 없다. 그라인더를 사용 후 스테인리스 클리너를 이용해 그을음과 벗겨지다 만 곳을 닦아준다. (거울을 여러 단계의 약품 처리로 만들어져있다. 그라인더로 밀 때 단계별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울을 앞면으로 돌려 에폭시를 이용하여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부착하여 준다.

작품설명-

작품 영역 확장은 거울 속 또는 유리에 비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기 위해 손을 이용해 부분을 닦아 내는 모습을 담고 있다. 손으로 닦아내진 부분을 통해 거울 속 비치는 공간을 확장해 간다. 돌은 물이나 바람에 따라 흘러 이동하는 오브제로 작품 영역 확장에서 인위적이지 않는 시, 공간을 확장하는 물체로 상징된다.



【작품 8】 흐름의 흔적, 60x60, 거울, 자연석 2014

【작품 8】 흐름의 흔적

제작년도 : 2014년

작품크기 : 60x60 cm

작품재료 : 거울, 자연석

제작방법-

거울의 뒷면에 드로잉을 한 후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드로잉 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제거한다. 제거할 때물을 뿌리면서 하면 물이 없을 때 보다 빠르게 제거되며 냄새와 가루 날림이 없다. 그라인더를 사용 후 스테인리스 클리너를 이용해 그을음과 벗겨지다 만 곳을 닦아준다. (거울을 여러 단계의 약품 처리로 만들어져있다. 그라인더로 밀 때 단계별로 제거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울을 앞면으로 돌려 색을 입힌 돌을 에폭시를 이용하여 흐름의 마지막 부분에 부착하여 준다.

작품설명-

흐름의 흔적은 돌이 자연에서 물이나, 바람에 의해 이동하는 순간적 형태를 흔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돌에 색을 입힌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연기와 같은 흐름의 흔적에 반하여 그 흐름을 나타낸 물질적인 형태를 눈에 띄게 보여주고자 한다.

Ⅲ. 결 론

본 연구에서 거울은 비치는 것에 따라 주변 공간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여 다뤄지고 있다. 본인의 거울 작품이 설치되는 공간과 진공증착이 제거된 부분을 통해 보이는 거울 뒤의 공간을 연결해 관람자에게 다양한 시. 공간을 경험하게 한다. 거울의 본질인 반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공간을 확장시키고 돌의 흔적을 표현함으로써 현재와 과거의 시간과 공간에 중합된 가상의 공간을 경험하게 하였다. 본인의 작품을 통해 거울이 많은 것을 담지 않아도 어느 공간에 설치됨에 따라 공간과 시간을 다양하게 보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공간은 고정된 물체 외에 공간(장소) 속에서 움직이는 관람객들과 작품이 설치된 공간 외의 확장되어 보이는 공간에 변화하는 배경들을 본인의 작품 속 거울에 보여 줄 수 있었다. 이것은 공간에서 존속하는 시간의 흔적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시간과 공간의 흐름과 움직임을 이미지화 시키려 하였다. 거울에 고정된 공간이나 지나가버린 시간을 그려 현재 흐르는 시간과 오버랩 시킴으로서, 본인이 이러한 작업을 하게 된 모티브가 된 버스여행 중 느낀 감정을 표현하였다.

작품에서 사용된 오브제인 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물체 중 하나이다. 자연스럽고 공간적 존재로, 시간과 공간의 압축된 물체를 작품에 접목시켜 압축된 세월의 흐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은 자연의 이치로 결코 거스를 수 없으므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시간은 작품 속 상상의 공간에 재창조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인은 지나간 공간 속 시간과 현재의 시간 사이의 교차점을 가상의 공간

으로 칭하여 작업을 이어 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거울의 외곽 형태에 정해진 가상의 공간이 아닌 비치는 공간과 설치되는 공간의 구성을 계획, 분석하여 공간 흡수를 통한 공간 속 시간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흐름의 흔적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번역본

- 이우환 지음, 김춘미 옮김, <여백의 예술>, 현대문학, 2002
- 질케 폰 베르스보르트-발라베 지음, 이수영 옮김
<이우환: 타자와의 만남>, 학고재, 2008
- 진 시겔 지음, 안현미 옮김, <현대미술의 변명>, 시각과 언어, 1996

2. 홈페이지

- 두산백과사전 <http://www.doopedia.co.kr/>
- 한국국제교류재단 <http://www.koreana.or.kr/index.asp?lang=ko>

ABSTRACT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ime in the
space reflected in a mirror
-On the basis of my work-

NO, Seung-Ok
Dept. of Plastic Art
Graduated School of Plastic Arts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d and analyzed work forming background and expression of works released before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2014 and focused on relations between space and time in the mirror and objet expressions.

A mirror is the material seeing person or space in front of the mirror by reflecting light. This researcher showed space of the mirror and space behind the mirror by eliminating the backside of the mirror. And, by installing a stone on the surface of the mirror, the mirror was eliminated by the stone and it was installed as if the backside is shown. Spectators can experience various poems and spaces by relating the space work

reflected in a mirror with the space behind the mirror, shown by where the mirror was eliminated. Like that, a mirror of this researcher's work includes the stream of time as new experience and trace of the space. At that time, the stone used in this work expresses the stream of time compressing temporal stream in this researcher's work as an objet flowing and changing by water or wind.

In Chapter I, Introduction, the stream of time was objectively explained by purposes to write this thesis and mirror this researcher thinks.

In Chapter II, Main body, meaning of the space in work and meaning time gives the space were studied through the description of work producing motives as a background of work formation. In the study of this researcher's work, formative characteristics were described by dividing into symbol of mirror and objet using.

And, this researcher's world of works was examined by explaining production method of works and explanation of works through the analysis on works.

In Chapter III, Conclusion, this thesis was arranged, insufficiencies were supplemented based on this research and this researcher intended to seek following direction of works.